



◆ 숲가꾸기 부산물,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공급

-산림청, 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위한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산림내 방치되는 숲가꾸기 부산물을 바이오에너지용 원료로 공급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신규 운영하기로 하고 '07. 3. 6부터 수집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바이오매스(Biomass) : 에너지 이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총칭

* 산물수집단 :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버려진 산물(목재)을 수집하여 바이오에너지용 등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일자리 근로자

* '07년 예산 : 68억원(국고 48억원)

산림청은 매년 20만ha의 숲가꾸기를 추진하면서 약 250만^m의 부산물이 발생되나 수집비용의 과다소요로 발생량의 11%수준인 27만^m정도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산림 내에 방치되어 자원의 낭비는 물론 산불, 병해충 확산 등 산림재해의 원인이 되어 왔다.

최근 숲가꾸기 산물은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축시켜야 하는 기후변화협약 이행대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최적 자원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대두되면서 대량으로 공급 가능한 숲가꾸기 산물 이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등 목질계 연료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료용 우드 칩(Wood chip)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산물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화석연료 대체효과 : 200만^m의 산물을 수집 이용시 중유 34만드럼(525억원)

또한 숲가꾸기 산물은 보드용(파티클보드, MDF

등)· 펄프칩용 등 산업용 원자재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국산 원자재 공급을 확대할 경우수입대체효과도 높일 수 있다.

* '06년 파티클보드(제품) 수입량 : 96만^m
(1,302억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8개 시·군(도별 1개 시·군)에 각 50명씩 총 40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물량을 연중 균등배분하여 상시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반 공공근로사업과 차별화하여 개인별 1일 수집 의무량(0.8^m)을 부여하여, 연간 8만^m(5톤 트럭 약 1만 6천대분)의 목재를 수집하게 된다.

수집된 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바이오에너지용 연료 또는 각종 목질보드와 펄프·칩의 원료 등 산업용 원자재로 매각하게 되며, 그 재원은 산림환경 개선사업 또는 국산재 이용촉진사업에 재투자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계장비를 활용한 대량수집방안과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의 추진의지를 다짐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6일 전국(8개소)에서 동시에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앙행사는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문의 :산림청 목재이용팀 강신원 사무관
(042-481-4201)

◆ 한 그루 나무심기! 지구환경을 생각할 때입니다.

산림청은 2007년도 봄철 나무심기 추진 기간(3.1~ 4.30) 동안 "한 그루의 나무심기가 지구환경을 살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 1인당 1그루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 2만ha에 43백만 그루를 온 국민이 참여하는 나무심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림육성단지(450개, 292만ha)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림을 추진하여 목재생산·공급 기지로 육성

- 소나무·낙엽송·백합나무 및 지역특색 자생수종 조림 확대하되, 잣나무·상수리·자작나무 조림은 축소

도심, 마을, 학교, 거리 등 생활권 주변지역을 지역발전과 연계한 특색 있는 숲 조성 추진

- 마을숲, 학교숲, 거리숲, 내고장 명산숲 등 지역 특색 경관림 조성제62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중앙·지자체 등과 연계 추진
-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추진- 각급 기관·단체, 학교·마을, 군부대 등 국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추진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나무심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참여 확대- 시민들에게 나무를 나누어 주고, 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쁨과 보람 고취

- 시·군·구, 관리소별 내 나무 심고, 가꿀 수 있는 장소 제공(280개소)

나무를 심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129개소의 나무시장 개설 운영(산림조합중앙회, 시·군 산림조합 등)

치산녹화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 조림기술을 개도국의 황사·사막화방지사업에 녹화기술 전수할 계획입니다.

-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 착수(07년부터 10년 간)- 인도네시아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지 복구지원
- 한반도 생태복원을 위한 임진강 유역 등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팀
이영선 (042-481-4183)

◆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취미 등산, 정부지원 10년 계획 발표

-산림청, 2017년까지 국민 등산활동 종합 지원 위한 『등산지원 기본계획』 마련-

올해부터는 약 1만8천km에 이르는 전국의 크고 작은 등산로가 「국가 등산로」, 「지방등산로」, 「지역 등산로」로 구분되어 관리·지원되고 100대 명산 등 전국 주요 산에는 종합 등산정보를 제공하는「등산안내센터」가 설치된다. 또한 훼손이 심각한 등산로에 대해서는 「등산로 휴식년제」가 실시되고 전국 주요 산에 대해서는 「국가표준 등산로 지도」가 제작되는 등 국민의 등산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정책과 사업이 추진된다. 5일 산림청은 이와 같은 종합적인 등산지원 정책과 사업계획을 담은 『등산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유익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7개월여에 걸쳐 대학, 관련기관·단체, 관계부처, 지자체 등 등산관련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한 『등산지원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등산로의 특성, 등산활동 지원주체에 따라 등산로 분류체계를 「국가등산로」, 「지방등산로」, 「지역등산로」로 새롭게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관 산림별로 국유림의 등산로는 국가가, 민유림(사유림+공유림)의 등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의 등산로(탐방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각각 관리해 왔으나 선형(線形)의 휴양공간이라는 등산로의 특성을 살려 백두대간을 비롯한 9개 정맥과 같은 국가 주요 산줄기 등산로는 「국가등산로」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시·도 일주(一周) 등산로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등산로는 「지방등산로」로 지정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도시생활권의 등산로는 「지역등산로」로 지정하여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 등산로의 특성과 지원주체에 맞는 새로운 등산로 분류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는 그동안 등산로 관리가 노선단위가 아닌, 산림소유 기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구간구간을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요 등산로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등산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보행편의성이나 안전도를 기준으로 1급부터 3급까지 등산로 등급을 구분하여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등산객들이 자신의 체력 수준에 적합한 등산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었다.

등산로 분류체계 개선과 더불어 산림청은 전국 등산로 분포현황, 이용빈도, 훼손실태 등 등산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국가표준 등산로 지도」를 제작·배포함으로써 등산정보를 표준화하고 누구나 손쉽게 등산지도를 활용하여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 「숲길 조사원」410명을 선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배치하였으며, 3월까지 조사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마치고 현장조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체 등산로 1만8천km의 약 30% 가량이 바닥침식, 노면확대 등으로 훼손되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훼손 등산로는 신속히 복구하고 훼손이 심하여 복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은 「등산로 휴식년제」를 실시한다. 나아가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등산로는 대체노선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이와 같은 등산로 관리체계 개선 외에도 등산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 프로그램 확대에도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등산로 주변에 야생 동·식물 해설판, 경관 해설판, 조류관망대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이 숲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등산로 주변의 산촌마을, 자연휴양림을 등산과 연계한 숙박시설로 활성화하는 가운데 폐교를 야영장으로 전환하여 등산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등 산악레포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고려,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까지 주로 산림경영을 위해 활용되어 온 입도시설을 정비하여 산악레포츠 공간으로도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0대 명산 등 주요 산에는 「등산안내센터」를 설치하여 등산지도, 산악기상정보 등 종합적인 등산정보를 제공하고, 등산안내인이나 숲해설가도 배치하는 등 등산객을 위한 다양한 안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올바른 등산문화를 만들기 위해 등산학교를 운영하고 전국 8개 지역에는 산림청 항공관리본부 자원을 활용한 산악구조대를 두어 등산객의 안전사고에도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등산은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5명 가운데 4명이 1년에 한번 이상 즐기는 취미생활로 약 1천5백만명 정도가 매월 정기적으로 산행을 하고 있으며, 연간 등산인구 만도 4억6천만명에 이르는 가장 활성화된 국민의 취미생활이다.

※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한국갤럽조사, 2006)

또한 우리 국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즐기는 생활체육 종목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등산의 순위가 1, 2위를 다룰 정도로 매우 인기 있는 취미활동으로

『등산지원 기본계획』은 2005년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정되면서 산림청이 등산업무를 전담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국민을 위한 산림이용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의 취미생활인 등산활동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등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등산지원 정책이다.

●문의 :산림청 등산지원팀 박은식 팀장
(042-481-4207)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사계절 푸른 우리 향토나무를 심읍시다.”

7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달 상징 수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895명 가운데 384명(42.9%)이 상록수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활엽수 225명(25.1%)과 과실수 158명(17.7%), 화목류 128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과 관리상 불리해도 외래수종 보다는 향토 수종을 심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630명(70.7%)에 달했으며, 상징 수목의 이미지로 '전통적'을 택한 응답자가 217명(24.3%)로 '편안한'(199명, 22.3%)과 '역동적'(190명, 21.3%)를 약간 앞질렀다.

건설청은 이번 조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느티나무와 모감주나무, 소나무, 무궁화 등 15개 후보를 선정해 오는 20일까지 2차 선호도조사를 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http://www.iklc.co.kr>)에서 실시한다.

건설청은 2030년 완성되는 행정도시에 1천만그루 이상의 나무를 단계적으로 심기로 했으며 도시를 상징할 대표적인 수종을 골라 도시 진입로와 환상형 대중교통축에 심을 계획이다.

◆국립수목원 예약제도 변경

수목원 관람희망자의 방문기회를 확대하고 예약 남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국립수목원 예약시스템이 변경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예약인원의 40%에 달하는 등 예약남용 사례가 빈번하여 실제 관람 희망자가 방문

하는 기회를 일일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약시스템을 변경하여 오는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예약시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사전 결제하므로, 예약 후 방문하지 못 할 경우에는 미리 취소하여야 납부된 입장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며, 이 제도로 입장권 구입을 위한 매표소에서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임은 물론, 취소된 예약 인원은 다른 관람 희망자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되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평일 야간(18:00 이후)이나 휴일에는 전화 예약이 안되었으나, 인터넷 www.kna.go.kr 과 ARS(031-540-2000) 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는 연중(무휴)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국립수목원은 평일에 한하여 하루 5천명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예약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입장하고 있다.

◆ 62회 식목일! 서울 四山에서 동시 나무심기

-서울 4산에서 650명 참여, 식목일 나무심기 실시 -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제62회 식목일(4.5)을 맞아 '도시를 푸르게, 삶을 풍요롭게'라는 주제로, 역사성이 깊은 서울내 四山(북악산, 낙산, 인왕산, 남산)에서 시민 등 650명이 참여하여,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동시 실시함으로써 생활 속의 나무심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제62회 식목일을 맞아 우리 민족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서울내 四山(북악산, 낙산, 인왕산, 남산)에서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풍수지리적으로 서울은 서출동류(西出東流)의 청계천과 경복궁을 중심으로 4대 내산(외산)이 있는데, 북쪽에 주산인 북악산(북한산), 서쪽에 우백호 인왕산(덕양산), 동쪽에 좌청룡인 낙산(용마산), 안산에 해당되는 남산(관악산)이 남쪽에 있다.

主山인 북악산에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소나무복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고, 낙산(남산공원사업소), 인왕산(종로구청), 남산(용산구청)에서는 서울시 주관으로 소나무 등 3,000그루를 식재

하고 비료주기(360kg)를 실시하여 식목일의 의미와 생활속의 나무심기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내 四山에서의 나무심기를 계기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여건에 맞게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나무심기가 활성화되고, 잘 가꾸어진 숲을 통해 삶이 더욱 풍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팀

이영선(042-481-4183)

◆ 산림청, 62주년 식목일 맞아 산림사업유공자 포상

4월 3일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제62주년 식목일을 맞아 산림자원조성과 산림소득증대 등 임업발전에 공이 많은 임업인 10명에게 산림사업유공자 포상을 실시하였다.

올해 산림사업 유공자로는 동탑산업훈장에 김태원씨, 철탑산업훈장에 이춘만씨, 산업포장에 박호진, 이정무씨, 그리고 대통령 표창에 최두한씨의 5명 등 총10명이 선발되어 영예로운 포상을 수여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을 수여받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김태원씨는 36년간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해 오면서 협회장으로서 임업인을 위한 각종 정부시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도농간 교류증대 등 우리 임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또한 철탑산업훈장을 수여받은 이건설업 이춘만 대표이사는 26년간 합판업계에서 종사하면서 해외조림을 통한 원자재의 확보, 합판제조과정의 획기적인 수출향상을 통한 목재자원 이용의 극대화를 이룩하였을 뿐 아니라, 이건설음악제 개최, 해외조림지에 대한 각종 사회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한편 이날 포상자들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정부포상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통해 결정되었다.

● 문의 :산림청 경영지원팀

박대진(042-481-4193)

◆ 노무현 대통령 내외, 북악산에서 식목일 행사

-제62회 식목일을 맞아 북악산에서 「도시를 푸르게 삶을 풍요롭게」라는 메시지로 나무심기 행사-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4월 5일 제62회 식목일을 맞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북악산 기슭에서 학생, 임업인 및 지역주민 등 250여명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북악산 기슭은 원래 소나무가 울창했던 숲이었으나 조선시대 말부터 각종 건축재 또는 연료 등으로 활용키 위해 소나무 숲이 훼손된 뒤, 일제 때 아까시 나무로 복구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방사업지역이다.

이날 노무현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현재 수명이 다해 쇠퇴해 가고 있는 아까시나무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식재하여, 우리 소나무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되살리고, 이어서 북악산 전면개방 행사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역사적 유물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나무심기에 앞서 산림청장(서승진)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녹색국가 구현』이라는 참여정부 산림정책의 기초와,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산림서비스 확대 등 앞으로의 산림정책에 대한 비전을 보고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식목행사장에서 아까시 나무를 직접 자르는 현장 숲가꾸기를 실현해보고, 이어 성북 초등학교들과 함께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서울의 북악산을 중심으로 풍수를 이루고 있는 좌청룡인 낙산과 우백호인 인왕산, 주작(안산)인 남산에서 총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나무심기, 나무 나누어주기, 비료주기, 숲 가꾸기 등을 함으로써 『도시의 숲을 잘 가꾸어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메시지를 전하여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팀 조백수 사무관
(042-481-4185)

◆ '국민의 숲' 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북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24개소 운영

최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정착, 웰빙의 관심증대 등으로 인해 산을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스스로 국유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늘어나는 산림의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유림 관리에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의 숲」 2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숲」은 접근이 쉬운 관내 국유림 숲을 대상으로 누구나 숲가꾸기, 나무심기 등의 산림체험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휴양·문화공간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기업·민간단체·동호회 등과 함께 협약을 맺어 숲을 스스로 가꾸고 보호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숲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도 국민의 숲에 63백만의 예산을 투입, 숲 체험로, 산책로, 수목표찰 및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숲 해설가를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숲 해설을 서비스하며, 신규로 3개소의 국민의 숲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국민의 숲」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의 숲의 이용신청을 인터넷이나 지역별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장석규 033-738-6250

※ 국민의 숲 참여 신청 방법

○ 인터넷 : www.foreston.go.kr/국민의 숲

○ 국유림관리소

- 서울·인천·경기북부 지역 : 서울국유림관리소(☎02-969-2665)

- 경기남부지역 : 수원국유림관리소(☎031-240-8922)

- 춘천·화천·가평·철원지역 : 춘천국유림관리소(☎033-242-9657)

- 양주지역 : 양주국유림관리소(☎033-482-1304)

- 인제지역 : 인제국유림관리소(☎033-463-8165)

- 홍천·횡성·원주지역 :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3-2498)

※ 「국민의 숲」이용신청은 인터넷과 국유림관리

소에서 접수합니다

◆ 광릉지역 재선충병을 계기로 전국적 특별대책 추진

- 11일, 「전국 재선충병 특별대책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지난 3월 23일 광릉지역 재선충병 발생에 따라 광릉지역 「특별대책구역(14천ha)」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긴급예찰을 완료하고, 4월 11일 오후 2시에 전국 시·도 산림관계 국장과 지방산림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재선충병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작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계획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재선충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가 활동하는 시기(5~8월)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도 높은 방제와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재선충병으로 고사되었거나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나무와 잣나무 총 23만 그루중 남은 9만 그루를 매개충이 우화하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제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둘째, 앞으로 예찰원 뿐만 아니라 전 산림공무원이 매월 마지막 주를 정기예찰 주간으로 정하여 예찰에서 발견된 고사목은 고사원인을 규명하는 등 상시예찰·방제 체계를 유지함과 아울러 수시로 항공예찰을 병행기로 하였다.

셋째, '07년 3월 28일부터 발효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의 읍·면·동 전체를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반출을 금지하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생산확인표를 발급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벌하기로 하였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과 목재생산 및 유통이 많은 지역에는 핵심초소 54개소를 24시간 운영체제로 가동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일반초소 146개소를 취약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매개충 우화기인 5~8월 사이에는 상시예찰원(59명)과 인턴예찰원(480명)을

발생지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여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째, 방제작업을 잘하여 2년간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정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산림사업 우선 배정, 공무원표창,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이제 재선충병이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어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므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소나무나 잣나무를 발견할 경우에는 산림당국에 신속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특별 당부하였다.(신고전화 1588-3249)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재선충을 반드시 잡는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감염목은 모두 찾아 남김없이 제거하여 재선충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 전국 산림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재선충병 ABC실천운동」을 전개기로 다짐하였다.

※ 재선충병 ABC 실천운동의 구체적 내용 붙임참고

한편, 지난 3월 23일 광릉지역의 시험림에서 잣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을 계기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등 9개 기관 합동으로 연인원 2,723명을 동원, 광릉지역의 「특별대책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도권 산림을 대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나온 고사목 총 3,057그루에서 시료 9,052점을 채취하여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정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릉지역 특별대책구역(14천ha) 안에서는 소나무·잣나무 고사목 등 총 2,998그루를 현미경 검사하여 이중 2,981그루는 재선충병이 아닌 일반 고사목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 나머지 17그루에서는 소량의 선충이 검출되었으나 기존의 재선충병 발생지역(광주·춘천·원주·남양주)의 재선충과는 그 모양과 유전자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정밀 염기서열 분석을 의뢰하기로 하였으며, 2주후면 재선충병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릉지역 특별대책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소나무와 잣나무 59그루를 시료 분석한 결과 3

개소에서 총 8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 문화재청 소관의 태릉관리소(서울 노원구 소재) 10그루 중 소나무 1그루, 홍유릉관리소(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48그루 중 소나무 5그루, 잣나무 1그루, 포천(신북면 소재) 잣나무 1그루

○ 금번 감염목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시기, 감염경로 등을 정밀 추적 조사할 계획이며,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소관 부처인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방제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번 태릉·홍유릉·포천의 재선충병 확인을 계기로 산림청에서는

○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산림에 대하여 각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수산림 정밀예찰」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문화재청-문화재보호구역, 환경부-국립공원, 국방부-군부대 산림 등)

○ 이번 「광릉지역 특별예찰조사」결과 발견된 기존의 소나무·잣나무 고사목은 4월말까지 전량 벌채·제거하여 재선충의 산란처를 미리 없애도록 하였으며

○ “룽” 지역에는 예방나무주사를 놓는 등 확산 방지와 조기발견·즉시방제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산림병해충방제팀
강성도 사무관(042-481-4076)

◆한·중 산림기관, 황사 및 사막화 방지 협력 합의

산림청(서승진 청장)과 중국 국가 임업국(State Forestry Agency, 賈治邦 국장)은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하여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 사막화 방지림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아지방(賈治邦) 중국 국가임업국장은 4월 12일 산림청장을 예방하고 그 동안 쌓아온 양국간 산림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구차원의 환경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해 앞으로 양국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금에 산림청과 중국 국가임업국이 지원하고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중미래숲(대표 권병현)과 중국의 전국청년연합회(胡春華 주식)가 실행하는 쿠부치 사막지역의 사막화 방지림 조성사업을 양국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내몽고 쿠부치사막의 사막화 방지림 조성 사업은 황사의 주 발원지인 중국 쿠부치사막에 바람막이 숲을 조성하여 봄철에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이 사업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과 연계하여 앞으로 한·중국간 정례 임업협력회의를 통해 중국내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산림청 해외자원팀장
박종호 팀장(042-481-4229)

◆한·미FTA 임업분야 협상, 민감품목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로 무난한 타결

지난 4월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서 목재류,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총 354개 품목(단기임산물 108개, 목재류 246개)에 걸쳐 협상을 펼친 임산물 분야 협상은 밤, 잣, 표고버섯 등 단기 임산물 79개 품목과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목재류 64개 품목을 포함 총 143개에 이르는 민감품목에서 대부분을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로 타결함으로써 무난한 협상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이번 임업분야 양허협상은 우리 임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장기 관세철폐 또는 예외적 취급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가운데 단기 임산물 분야에서는 밤, 잣, 호도, 버섯류 등 전체 품목의 12% 이상이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반면 국내 생산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나머지 품목은 대미



수입액, 현행 관세율, 우리측 민감도에 따라 5년~12년 동안 매년 관세를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목재류 분야에서는 OSB, 섬유판, 합판 등 10개에 이르는 우리측 민감품목 중 초민감 5개 품목(OSB 2, PB 1, 섬유판 1, 합판 1)은 비선형감축 10년 철폐, 5개 민감품목은 10년 균등철폐로 타결을 지었고, 원목, 목재칩, 석재류 등 이미 시장이 개방되어 있거나 산업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 비선형 감축 : 이행초기는 소폭 감축 후 이행 말기에는 큰 폭으로 감축하는 관세감축 방식이며, OSB,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등 초민감 5개 품목이 해당

또한 나머지 품목도 우리측 민감도 수준에 따라 10년 철폐(54개), 5년 이하 철폐(182개)로 원만한 타결을 보았다.

이번 한미FTA협상에 따라 우리나라 임산물 총 수입증가액은 약 127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 장기적으로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소비대체 관계에 있는 밤, 잣 등 수실류의 생산 및 소비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수실류를 제외한 임산물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며,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수출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목재류에 있어서는 합판, 보드류 등 민감품목이 장기(10년)철폐 대상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드류 산업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협상결과를 토대로 한미 FTA 협정발효 전에 임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협정 이행기간 동안 피해 예상품목의 경쟁력 향상과 임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대책과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기 임산물의 경우 호도, 밤 재배지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유망소득 품목을 중심으로 대체작목을 조성하고 기계화, 토양개량, 관수시설 확대 등을 통해 임업농가의 소득기반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임산물 재배기술 개발과 생산이력제, 임산물에 대한 GAP제도 시행 등을 확대하여 외국산 임산물과 차별화된 친환경임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

내 밤 소비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유망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고품질의 산채와 약용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임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호도, 밤 등의 임산물 표준화, 브랜드화, 임산물지리적표시 인증제 등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목재분야에 있어서는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 및 이용확대를 위해 목재가공업체의 원료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임목을 사전 매수할 수 있도록 목재비축자금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벌채시 운재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임업기계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며 숲가꾸기 산물과 폐목재의 활용도를 대폭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목재생산동향, 지역별·규격별 거래가격 등 유통실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산주, 임업인 및 업계에 제공하고 목재수출국의 생산 및 가격 동향, 목재정책 등의 정보도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자재의 저가품 유통을 방지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용도별 사용규격을 제정하며 품질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임업계 전반에 걸쳐 임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 등 전문임업인 육성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자 단체에 대한 공동소득사업 지원을 통해 임가의 소득기반을 조성하며,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13일(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미 FTA 협상결과 및 대책방향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임업인, 학계, 연구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서승진 산림청장 주재로「한미 FTA 협상결과 및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 문의 :산림청 국제통상협력팀

최수천 팀장(042-481-4080)

산림자사무관

(04

